

# 제 꿈이 누군가의 고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Making and nurturing of Place, My dream and someone's home

조민성 | 대구청구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학원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 다니던 거리, 너무나도 익숙해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도 누군가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진 것이겠구나. 이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은 곳도 어른이 되어 타향살이를 한다면 그리워 지겠구나 하고 말합니다.

저는 그 그리움과 추억을 한 발 더 발전시켜 그런 장소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진로를 결정하고 난 후 건축사가 되기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이나 체험활동 등을 알아보았지만 '건축이란' 평소에 접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학교에서 진로탐색과정으로 '전공 학문과의 만남'과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공학문과의 만남에서는 건축토목공학 박사 두 분이 오셔서 대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에 중점을 둔 건축과 보다 안전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연구하는 건축공학과와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인과의 만남에서는 한티겐 건축사사무소의 황종철 건축사께서 오셨습니다. 말씀들 가운데 건축에 대한 전망을 비춰주셨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비전이 밝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 주신 조언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 사람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급하게 산업화가 되어버린 한국은 이제 사람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아야 할 때'라며 '높아만 가는 아파트에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배려 할 줄 아는 건축으로 트렌드가 바뀌면 전망은 충분히 밝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 후 여름방학이 다가오던 중 건축캠프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 모두 지원서를 써 보았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탓인지 캠프를 참가하는데 실패한 이후 내가 아직 기본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얻으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을 깨닫고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전엑스포에서 열리는 건축문화제를 다녀왔는데, 모형 만들거나 가구 만들기과 같은 체험활동과 많은 전시작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외로 대전 도시사진전에서 보게 된 한 장의 사진으로 생애 첫 건축적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대전의 풍경을 담은 대다수의 사진들과는 달리 유독 마음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골목과 담벼락에 벽화가 그려진 곳의 사진이었습니다. 제목인지 설명인지 모를 네글자 '동구 대동'. 이것만 가지고 무작정 찾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전의 지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스마트폰의 힘도 빌리고 택시아저씨의 도움도 받아 한 주택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쪽에서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으로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걸은 지 10분 쯤, 그 사진 속을 연상시키는 비슷한 그림들과 계단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그 길과 계단을 걸으니 삭막한 도시보다 사



필자는 대구 청구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으로 나의 꿈 발표대회(건축사)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각종 건축행사에 참여하는 등 차세대 건축인으로서의 꿈을 향해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

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획일화 된 공간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살아가고 또한 건축주는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함일 뿐이지만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돈으로는 가치를 측정 할 수 없는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이나 저처럼 우연히 들려 그곳을 가슴속에 품은 것 그것이 바로 보존도 건축의 일부라는 생각입니다.

람 사는 냄새도 나고 웬지 모를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돌아가는 길에 발견 한 안타까운 공고문 한 장, 이 지역의 재개발을 알리는 글이었습니 다. 순간 가슴이 탁 막히고 얼어붙은 채 공고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축, 건축의 사전적 정의는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설계하여 쌓아 올릴 때에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건설일 뿐 건축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담겨있을 그 골목길, 처음 온 손님에게도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며 반겨준 그 골목길,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도 건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획일화 된 공간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살아가고 또한 건축주는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함일 뿐이지만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돈으로는 가치를 측정 할 수 없는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이나 저처럼 우연히 들려 그곳을 가슴속에 품은 것 그것이 바로 보존도 건축의 일부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책에서 말하길 '공간과 장소의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주관적인 요소의 유무이다. 공간은 객관적인 3차원이지만 장소는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되는 그들만의 세상이다.' 과연 무분별한 건설로 인해 공간만 생겨나고 장소가 하나 둘 사라진다면 그것이 올바른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꿈은 바로 공간보다는 장소를 창조하는 건축사입니다. ㉮



대동 하늘동네(출처\_대동주민센터)